신세계 L&B
http://www.shinsegae-lnb.com
Tel: 02-727-1685

Booker The Ones Reserve Art Label

부커 더원 리저브 아트레이블

박서보 화백의 작품 '묘법 No. 170903'을 레이블에 담은 와인

+ 당도 1 (2 3 4 5)
+ 산도 1 2 3 4 (5)
+ 바디 1 2 3 4 (5)

Type	레드 와인
Country / Winery	미국 > 캘리포니아 / 부커
Grape Variety	까베르네 소비뇽 70%, 쁘띠 베르도 20%, 시라 10%
Capacity	750ml
Food Matching	붉은 육류요리, 치즈, 야생 가금류 요리

Information

짙은 가넷 색 벨벳 같은 색을 띠고 있으며 신선한 까시스, 시나몬, 넛멕 등의 밝은 아로마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놀랍도록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블루베리의 맛과 균형잡힌 산미가 입안을 즐겁게 해준다. 부드러운 탄닌이 입안을 감싸며 기분좋은 마무리를 선사한다.
와인의 75%를 새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해 출시한다.

Tip

에릭 젠슨(Eric Jensen)은 와인양조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값비싼 장비나 사람의 재주보다는 포도밭에서 한 해 정성껏 재배한 포도가 자연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만나 균형 있고 건강한 와인을 만든다고 믿는다. '더 원 리저브'는 그의 모든 집념과 믿음, 묵묵히 이루어낸 수년간의 노하우가 집약된 단 하나의 특별한 와인이다.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은 "그리지 않고 비운다"고 말한다. 화려하고 세련된 색채의 과감함, 색이 주는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결국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한국인의 자연관과 발상을 같이 하는 것이 한지이다. 한지는 절대로 신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한때 서양 명가들의 종이들을 써봤지만 그것들이 나와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은 종이 위에 연필로 긋건, 칠하건, 또는 수채화 물감이나 먹을 칠했을 때, 서양 종이들은 칠해진 것을 들어내는 반면, 한지는 행위를 밖으로 내뱉지 않고 빨아 들이 듯 합일(合一) 함으로써 표현자의 신체성을 들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나에게 있어 아주 적절한 전달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박서보 -